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2월 4주 ~ 3월 1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EBRD, 2026년 폴란드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(2.26)
 - EBRD는 2026년 폴란드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.3%p 상향한 3.7%로 조정
 - 2027년 성장률은 3.0%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
 -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3.6%로 추정되며,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 기록
 - 2024년 감소했던 고정투자는 EU 기금 집행 확대와 에너지 전환·디지털화 관련 민간 투자 증가로 4% 이상 반등
 - 민간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, 가계 저축률 상승으로 2024년 대비 증가 속도는 둔화
 - 2025년 말 기준 물가상승률은 2.4%로 하락
 -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총 175bp 인하하여 4.0%로 조정했으며, 추가 완화 가능성도 시사
 - 2026년 공공투자는 EU 기금 집행 확대와 국방 프로그램, 국방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뒷받침할 전망
 - 다만, 국방 장비 수입 의존도가 높아 방위비 지출의 성장 효과는 일부 제한될 것으로 평가
 - 수출 수요 약화는 향후 성장 하방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
 - 종합적으로, EBRD는 최근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를 반영해 단기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나, 중기적으로는 성장 둔화와 대외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
- Oxford Economics, 폴 경제 '다각화 기반 성장 구조' 평가(2.26)

- 영국 경제연구소 Oxford Economics 관계자는 폴란드 경제가 소비·공공투자·수출·서비스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여 단일 부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되었다고 언급
-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4.0% 기록, 2026년 성장률 전망도 4.0%로 중부유럽 최고 수준
- 공공투자와 EU 기금 집행, 정부 지출 확대가 내수 기반 강화에 기여, 수출 실적도 예상보다 양호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
- 산업 구조 측면에서 식품산업 비중 약 18%로 안정적, 자동차 산업 비중 10% 미만,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 진행
- 서비스업은 문화·레저 중심으로 2022년 이후 23% 성장, IT·건설 부문은 둔화
-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7% 수준, 투자자 신뢰는 비교적 안정적이며, 2030~2031년 부채비율 75% 전망으로 중기적 재정 긴축 필요
- 통화정책은 2026년 기준금리 3.5%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, 종합적으로 균형적 성장 구조와 투자 기반으로 지역 내 안정성 유지, 다만 가격 경쟁력 약화와 중기 재정 부담이 주요 관리 과제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크라이나 부채비율,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도달(2.17)

- 우크라이나 중앙은행(NBU)은 전쟁 영향으로 국가부채/GDP 비율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, 단기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
- Pyshny NBU 총재는 전쟁 상황에서 국가가 '시간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'라고 설명
- 총재는 부채 규모 자체보다, 상환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
- 우크라이나 공공부채의 3분의 1 이상은 장기·저금리 조건의 공식 파트너 지원 자금으로 구성

- 주요 지원 프로그램(우크라이나 지원기금, MFA, ERA 등) 3개가 전체 공공부채의 36.7%를 차지
- ERA 관련 상환 재원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될 예정
-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은 11~12년의 장기 유예기간을 제공하며, 일부 비용은 EU 회원국이 분담 가능
- 이에 따라, 우크라이나 부채의 상당 부분은 고금리 시장성 차입이 아닌, 장기·안정적 공적 차입 구조로 형성
- 일부 부채는 향후 상환 부담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존재
- 총채는 연간 실질 상환 부담 기준으로 볼 때, 향후 수년간 재정에 중대한 압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
- 우크라이나의 부채 수준은 명목상 높은 편이나, 구조적 특성과 지원 조건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 재정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○ 우크라이나 기업, 전쟁 환경 속 재무 여력 유지 현황(2.26)

-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(EBA) 202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전체 기업의 76%가 현재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경영진 인식 측면에서 현재 기업 현황에 만족하는 최고경영진 비율은 32%에 그쳤으며, 약 40%는 2026년 경영 환경 악화를 예상
- 재무적 완충 능력과 관련하여, 기업의 67%가 1년 이상 운영 가능한 재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
- 전쟁 및 관련 환경 변화로 인한 누적 손실 규모는 1백만 달러 이하 손실 기업 19%, 1백만~10백만 달러 25%, 10백만 달러 초과 20%
- 2025년 중 사업장 이전을 경험한 기업은 10% 수준이며,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국내 이전 형태로 대응
- 종합적으로, 다수 기업이 단기적인 운영 여력을 유지하고 있으나, 에너지 공급, 인력 수급, 전쟁 지속 등 구조적 요인이 경영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PGE Energia Ciepła, 2026년 가스 배관·열병합 설비 구축 본격화(2.11)

- 2026년 PGE Energia Ciepła는 크라쿠프 가스 배관 공사 착공과 Nowy Czarnów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며, 연간 30여 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
- 크라쿠프 가스 배관은 신규 열원 공급과 발전 효율 개선, 대기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, 2034년까지 이어지는 크라쿠프 난방 탈탄소화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추진
- 2025년 말에는 크라쿠프 CHP 시설에 49.8 MWe 및 50 MWt 용량의 가스 엔진 2기 건설 1단계를 착수
- Nowy Czarnów 열병합 발전소는 2026년 3분기 가동 예정이며, 가스 배관 설치와 가스 보일러 공급 계약이 완료된 상태
- Gdynia CHP에는 가스 엔진 기반 신규 열병합 설비가 올해 가동될 예정이며, Gdańsk 및 Pomorzany CHP에도 신규 설비 설치를 위한 계약 체결 진행 중
- 2025년에는 Siechnice EC Czechnica 2 가스 CHP, Lublin 예비-피크 보일러, Bydgoszcz II CHP 열병합 설비 등 3개 대규모 투자를 완료
- 동시에 약 800개 건물을 난방망에 연결하며, 대학·연구기관·주거단지 등 주요 시설에 열 공급 확대
- PGE 기업의 전략에 따르면, 2035년까지 약 180억 즈워티 규모 투자, 이 중 150억은 신규 발전 기술에, 30억은 통합 난방망 개발에 배분 예정
- PGE Energia Ciepła는 16개 CHP, 712km 지역난방망, 25%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며, 폴란드 최대 전력·열 공급 기업으로 자리매김

○ Greenville Energy, 폴란드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(2.11)

- 영국 기업 Greenville Energy가 폴란드 재생에너지 시장에 첫 진출, 루블린 지역에 총 2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3곳 건설 예정
- 건설 일정은 2026년 3월 착공, 9월 완료, 12월 예비 가동 목표이며, 토론 기반 기업 Onde가 EPC를 총괄하여 지지 구조물, MV/DC/AC 케이블,

올타리 등 인프라 요소를 종합 제공할 예정

- Greenville Energy는 북아일랜드 기반으로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, 풍력, 고효율 열병합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중이며, 2020년 우크라 리비우주에 110MW 태양광 발전소 완공, 현재 연간 약 1.25GWh 전력 생산, 85,000가구 사용 가능, 2022년 5MW 추가 확장
- 회사 관계자는 중앙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폴란드 프로젝트를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기대

○ PKP PLK, 바르샤바 도심 신규 철도노선 건설 추진(2.11)

- 폴 국영 철도사 PKP PLK, 기존 도심 횡단선 현대화와 별도로 두 번째 도심 철도노선 신설 계획 발표
- 신규 노선은 기존 터널 하부에 2개 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식 검토 중
- 장거리·광역 고속열차 전용 노선으로 활용 예정이며, 시간당 열차 20편성 추가 수용 가능
- 기존 도심선은 Warszawa Zachodnia - Warszawa Wschodnia 구간을 연결하며, 신규 노선은 Warszawa Centralna역 하부에 신규 승강장층 신설과 연계 추진
- 터널은 Warszawa Główna 인근에서 시작해 동부역 또는 비스와강 절벽 인근까지 연결 검토
- 사업비는 약 40억 즈워티로 추산되며, 재원 확보 시 2040년 개통 목표
- 현재 설계·기본 구상 단계로, 세부 노선 및 사업 구조는 향후 조정 가능 하며, 기존 도심 횡단선 개량 사업은 약 50억 즈워티 규모로 2031~2035년 추진 예정
- 개량 사업에 앞서 Warszawa Wschodnia역 현대화 공사를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
- 본 사업은 바르샤바 철도 병목 해소, 장거리·광역 교통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로 평가됨

○ LX 판토스, 폴란드 물류센터 인수로 유럽 사업 확대 추진(2.12)

- LX 판토스는 한국 공공자금 지원을 받아 폴란드 카토비체(Katowice)에

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를 약 2,160억 원(148백만 달러)에 인수

- 해당 물류센터는 5개 건물, 총 연면적 109,000m² 규모의 신축 복합 단지로,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
 - 이번 인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국토교통부 산하 PIS 2호 펀드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,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금융 지원
 - 카토비체 물류센터는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,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적 허브 역할 수행 예정
 - 향후 러시아-우크라이나 휴전 시, 우크라이나 재건 물류 지원 거점으로도 활용 가능성 제시
 - 이미 다수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
 - 카토비체 지역은 자동차·전자·기계·화학 산업 중심의 제조 클러스터로, 전기차·배터리·자동차 부품 투자 확대에 따라 물류 수요 지속 증가
 - LX 판토스는 본 사업을 통해 유럽 내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며, “유럽 물류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을 확보한 것은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”고 언급함
 - 이번 투자는 한국 물류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와 함께, 공공·민간 협력 기반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 사례로 평가됨
- PSE, 2027년 1분기까지 50억 즈워티 규모 전력망 건설 입찰 추진(2.12)
- 폴 국영 전력기업 PSE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1분기까지 총 5,096백만 즈워티 규모의 전력 인프라 건설 입찰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
 - 이번 입찰 계획 공개는 잠재 시공사들의 사전 준비 및 자원 배분을 지원해 경쟁력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
 - 전체 입찰 가운데 약 4,196백만 즈워티 규모는 2026년에 집중 배정될 예정
 - 주요 사업은 ▲400kV 그단스크 블로니아 - 올슈틴 몬트키 이중회선 송전선로(6억 즈워티) ▲220kV 엘크 비스 - 폴란드 국경(Harmony Link) 송전선로(6억 즈워티) ▲400kV 크제미에니차 변전소(5.5억 즈워티) 건설 등이 포함
 - 또한 ▲220/110kV 노르키 변전소(3억 즈워티) ▲220/110kV 비그리 변전소

(3억 즈위티) 건설 사업도 핵심 프로젝트로 제시

- PSE는 이번 투자로 북부·동부 지역 전력망 연계 강화와 국경 간 전력연결 확대를 추진할 방침
- 해당 사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대, 전력 수요 증가 대응, 전력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가 전력망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

○ Grupa Azoty, 대표이사 해임 및 경영진 개편 단행(2.13)

- Grupa Azoty 이사회는 안제이 스킨모프스키(Andrzej Skolmowski) 대표이사를 해임하고, 알렉산드라 마호비치-야보르스카(Aleksandra Machowicz-Jaworska) 이사회 부의장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
- 마호비치-야보르스카 직무대행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신임 대표 선임 시까지, 최대 3개월간 직무 수행 예정
- 동시에 파베우 비엘스키(Paweł Bielski) 및 안제이 다비도프스키(Andrzej Dawidowski) 부사장도 해임 조치
- 이번 인사는 감독이사회 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, 감독이사회는 금융 기관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재무구조 개선 협상이 진행 중인 핵심 시점에서, 회사의 장기 재무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를 강조
- 경영진 개편을 통해 채권단과의 합의 도출 및 구조조정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
- 국유자산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, 새로운 경영진이 채권자와의 협상을 진전 시키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
- 이번 조치는 재무구조 악화와 경영 정상화 필요성에 대응한 긴급 경영 안정화 조치로 평가됨

○ ORLEN, KOWR와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 협력 확대(2.12)

- ORLEN과 폴 국립 농업 지원센터(Krajowy Ośrodek Wsparcia Rolnictwa, KOWR), 폴란드 내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 설비 구축·운영·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결
- 바이오메탄은 정제된 바이오가스로, 가스망 주입, bioLNG 생산, 바이오 수소 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생산 과정에서 분리된 이산화탄소는

농업·온실 분야 등에서 재활용 가능

- 2035년까지 연간 최대 240백만m³ 규모 바이오메탄 활용 목표 설정, 수송 부문 탈탄소화 및 온실가스 감축 목적
- Orlen 자회사인 Orlen Biometan이 주요 사업 주체로 참여하며, 협력 내용은 공동 투자, 기술·운영 경험 공유, 국유 농업 자산 활용 등 포함
- 농업·식품 부산물(가축분뇨, 사일리지, 곡물 부산물 등)을 연간 8만~10만 톤 규모로 활용하는 구조
- Gładbowo 지역에 바이오메탄·액화 설비 포함 신규 시설 건설 마무리 단계, 연 7백만m³ 생산 예정
- 기존 3개 농업용 바이오가스 시설을 단계적으로 바이오메탄 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, 해당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 폐기물 처리, 농가 소득원 다변화,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- 현재 폴란드에는 총 201개 바이오가스 설비(182MWe 규모) 운영 중, 바이오메탄 설비는 제한적인 상황
- 본 협력은 재생가스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

○ ArcelorMittal, 폴란드 Bytom 공장 1MW 태양광 발전소 가동(2.13)

- 글로벌 철강 기업 ArcelorMittal,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Bytom 공장 내 1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완료
- 본 사업은 Quanta Energy가 수행, 총 1,692개 태양광 모듈 설치
- 발전 전력은 판재 절단 설비, 크레인, 지게차 충전소 등 주요 생산 인프라에 직접 공급하며, 하절기 기준 생산 전력의 최대 90%를 자체 소비하는 구조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
- 태양광 설비 구축을 통해 전력비 절감, 탄소배출 감축, 가격 변동 리스크 완화 효과 기대
- 설비 구조물은 공장 내 생산라인에서 자체 제작된 강재를 활용, 시공은 Hetmaniok이 담당하며, 내식성 강재 적용으로 설비 내구성 강화
- ArcelorMittal은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생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

강화 방침 유지, 관계자는 본 설비가 공정 탈탄소화 및 운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
- 한편, ArcelorMittal은 폴란드 Kraków 사업장에서도 보일러·열회수·변전 설비 투자 추진 중
-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 천연가스 사용량 감축 및 연간 CO₂ 배출 약 11만 5천 톤 저감 전망

○ PEJ, 원전 건설 1단계 사전공사 핵심 절차 완료(2.10)

- 폴 국영 원자력 에너지 기업 PEJ, 포메라니아 지역 원전 건설을 위한 1단계 사전 준비공사의 주요 작업 완료 발표
- 부지 내 수목·관목 제거, 울타리 설치, 공사 예정지 정비 등 1단계 핵심 공정 종료
- 폴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인 GDOŚ(Generalna Dyrekcja Ochrony Środowiska)의 조건에 따라 환경 관리 하에 작업 수행 중
- 조류 번식기 및 관광 성수기 이전에 주요 벌목 작업이 완료되었으며, 벌채 목재는 국내 등록 업체에 매각
- 바이오매스 처리 및 그루터기 제거 작업 병행 추진, 4월까지 완료 예정
- 생태 복원 프로그램 마련 중으로, 건설부지 70ha 및 인근 부지 50ha에 신규 산림 조성 계획
- 사전공사는 2025년 중반 개시, 2025년 9월 관련 인허가 신청 완료, 2단계 공사는 현장 기반시설 구축 및 콘크리트 생산 설비 기초 공사 추진 예정
- 본 사업은 Lubiatowo-Kopalino Nuclear Power Plant 건설 프로젝트로, PEJ가 투자·운영 주체
- 발전소는 3기 원자로로 구성되며, 시공은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- Bechtel 컨소시엄이 담당
- 2028년 최초 원전 콘크리트 타설, 2036년 1호기 상업운전 개시 목표
- 본 단계 완료로 폴란드 첫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의 본격 착공을 위한 행정·기술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

○ 캐나다 AtkinsRéalis, 폴란드 제2원전 건설 경쟁 참여(2.12)

- 캐나다 엔지니어링 기업 AtkinsRéalis,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제2 원자력발전소 사업 경쟁적 대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
 - 자사가 보유한 CANDU(중수로·천연우라늄 기반) 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참여 의사 표명
 - CANDU 기술은 농축이 필요 없는 천연우라늄 사용으로 연료 공급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 가능성 제시
 - 회사 측은 기술 이전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장기적 현지 진출 전략을 강조하며,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현지 기업 참여 비율을 최대 70%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제시
 - 구조물·콘크리트·철강·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폴란드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며, 향후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바르샤바에서 현지 협력사 설명회 개최 예정
 - AtkinsRéalis는 루마니아·아르헨티나·한국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성 부각
 - 본 참여는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사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 심화 및 기술 선택 다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- CPK, 신공항 철도 허브 1단계 구간 계약 엔지니어 입찰 공고(2.16)
- CPK는 신공항 인근 철도 허브 1단계 구간의 설계·시공을 위한 계약 엔지니어 서비스 입찰에 20개 기업·컨소시엄을 초청, 3월 9일까지 입찰 접수
 - 본 사업은 고속철도 'Y' 노선의 일부로, Warsaw - 신공항 - Łódź 구간을 연결하며, Poznań 방면 노선 및 북부 CMK 연계 노선 포함
 - 이번 절차는 2022년 7월 체결된 계약 엔지니어 프레임워크 협약에 따른 다섯 번째 발주로, 가격 기준 최저가 낙찰 방식 적용
 - 선정 업체는 '설계·시공 일괄 방식(Design & Build)'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·관리, 설계 검증, 공사 승인·정산, 행정 인허가 지원 등을 담당
 - CPK 철도 허브는 3개 패키지로 분할 단계별로 추진되며, 국가 교통망 연계 강화 목적
 - 현 일정에 따르면 Warsaw - Łódź 구간 고속철은 2032년 이전 개통 예정이며, Poznań 및 Wrocław 방면은 2035년까지 완공 목표

- CPK 투자에는 Warsaw와 Łódź 사이 중앙 신공항 건설 및 고속철도망 구축이 포함되며, 초기 연간 여객 처리능력은 34백만 명 규모
 - 공항 건설은 Baranów, Wiskitki, Teresin 지역에서 2026년 착공, 2031년 인증 취득 후 2032년 개항 예정
 - 2032년까지 CPK 전체 투자 규모는 약 1,317억 즈워티로 추산
- 폴 인프라부, A4 고속도로 확장 사업 착수 결정(2.16)
- 폴란드 인프라부는 말로폴스카·실레시아 지역을 관통하는 A4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공식 승인하고, 관련 투자 프로그램 이행 문서에 서명
 - 본 사업은 Klimczak 인프라부 장관 주도로 추진되며,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국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
 -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즈워티 규모로, 일부 구간에 3·4차로를 추가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
 - 사업 대상 구간은 발리체 I 분기점부터 실레시아·오폴레 주 경계까지 약 120km에 이르며, 주요 교차로·고가도로·출입로 등 수백 개 구조물 신설 포함
 - 일부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이 10만 대를 초과함에 따라, 도로 용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평가됨
 - 본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(ESS) 도입이 포함, 정부는 A4 노선을 폴란드 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·친환경 고속도로 모범사례로 육성한다는 방침
 - 통행료 제도 개편도 병행 추진되며, Kraków - Katowice 구간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승용차·오토바이에 대해 통행료 면제 예정이며, 같은 시점부터 해당 구간 운영권은 폴란드 국가도로청(GDDKiA)로 이관
 - 또한 크라쿠프 남부 우회도로 노후 구간 현대화를 위해 별도 예산 25억 즈워티를 배정, 공항 연결 분기점 및 비스와강 교량 신설 포함
 - 이번 투자 결정은 폴란드 핵심 간선도로의 병목 해소, 물류 효율성 제고,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임
- PGE Energia Ciepła, 포모자니 열병합발전소 탈석탄·가스 전환 가속화(2.16)

- PGE Energia Ciepła는 포모자니(Pomorzany) 열병합 발전소의 현대화 1단계 사업을 위한 종합 시공사로 Metrolog Sp. z o.o.를 선정
 - 본 투자는 포모자니 열병합 발전소에 고효율 가스 기반 열병합 설비를 구축해, 폴란드 주요 난방 시장 중 하나인 Szczecin 지역의 안정적 열·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
 - 1단계 사업에서는 열병합 발전 유닛을 구축해 열·전력 동시 생산을 구현하며, 종합 에너지 효율은 최대 90% 수준으로 계획
 - 본 설비 도입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대폭 감축하고,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57% 절감할 것으로 전망
 - PGE는 해당 프로젝트를 그룹 탈탄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, 2030년까지 포모자니 발전소의 완전 탈석탄화를 목표로 추진
 - 사업 재원은 Provincial Fu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ter Management in Szczecin의 용자를 통해 조달
 - 발전 설비 규모는 열출력 25.1MWt, 전력출력 22.6MW로, 2028년 상업 운전 개시 예정
 - 본 투자는 석탄 중심 난방 시스템을 고효율 가스·열병합 체계로 전환을 통해,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됨
- CPK Port Polska 공항 탑승교 사업에 6개 기업 입찰 참여(2.17)
- CPK는 Port Polska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공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될 탑승교 92기(기본 72기·옵션 20기) 설계·제작·설치·시운전·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입찰 접수 완료
 - 입찰에는 ▲Sezo Invest - Shinmaywa 컨소시엄 ▲FMT Sweden AB ▲Albert Ziegler GmbH ▲Adelte Airport Technologies ▲TK Airport Solutions ▲Comsa Instalaciones y Sistemas Industriales (폴란드 지사) 등 6개 기업 참여
 - 제출된 제안서는 현재 적격성·완비성 검토 단계이며, 최종 낙찰자 선정 결과는 2026~2027년 경 발표 예정

- 본 사업을 통해 여객터미널과 항공기 간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, 환승·탑승 효율 개선 기대
 - 현재 폴란드 최대 공항인 Warsaw Chopin Airport에는 탑승교 27기 설치, 유럽 최대 규모 공항인 London Heathrow Airport에는 130기 이상 운영 중
 - Port Polska 사업은 Warsaw - Łódź 사이에 중앙 허브공항과 고속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
 - 신공항은 초기 연간 34백만 명 수용 규모로 설계되며, 수요에 따라 단계적 확장 계획
 - 공항 건설은 Baranów·Wiskitki·Teresin 일대에서 2026년 착공 예정, 2031년 인증 획득 후 2032년 개항 목표
 - 2032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1,317억 즈워티로 추산되며, 공항 개항과 함께 폴란드 최초 고속철도 구간(Warsaw - Port Polska - Łódź)도 동시 개통 예정
 - 본 사업은 항공·철도 연계 교통 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항공 수요 대응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됨
- **PGE Energia Ciepła, Gdańsk CHP 가스 열병합 설비 건설 착수(2.17)**
- PGE Energia Ciepła는 Gdańsk 열병합 발전소에 신규 가스 열병합 발전설비 건설 계약 체결
 - 본 사업은 Miko-Tech(주관) - Smart EPC - Electrum 컨소시엄이 수행하며, 총 사업비는 약 217백만 즈워티 규모
 - 설비는 동일 규격 가스엔진 8기로 구성되며, 총 발전용량 35MWe, 열생산 용량 39MWt 확보 예정
 -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는 2028년 목표로, 석탄 기반 열원 대체를 통한 탈석탄 전환 가속 목적
 - 해당 사업은 2025년 4월 고효율 열병합 발전 보조금을 확보해 재무적 안정성 강화
 - PGE Energia Ciepła Wybrzeże 지사는 Gdańsk·Gdynia 지역 CHP

설비를 운영 중이며, 연간 약 1,413GWh 전력과 13TJ 열을 생산

- 생산된 열·전력은 Sopot, Rumia, Reda, Kosakowo 등 인근 지역 난방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
- 본 프로젝트는 석탄 기반 난방설비의 단계적 대체,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물질 감축, 지역 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

○ 폴 최초 해상풍력단지 Baltic Power, 기초공사 완료로 및 준공 단계 진입(218)

- Baltic Power는 Baltic Sea 연안에 조성 중인 폴란드 최초 해상풍력단지 기초 구조물 78기 전량 설치를 완료하며 주요 공정 마무리
- 본 사업은 Orlen과 캐나다 Northland Power의 합작 프로젝트로, 현재 차기 투자·시공 단계로 전환
- 기초 설치 공정에는 20척 이상의 특수선박과 약 500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, 누적 기준 약 80척·4,500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해상 건설 프로젝트로 진행
- Orlen은 “대형 해상풍력 투자 중 전례 없는 규모와 정밀도를 요구하는 공정”이라며 사업 성과를 공식 평가
- 설치된 모노파일은 중량 1,300~1,700톤, 길이 최대 100m 규모로, 해양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 차음 커튼 등 친환경 공법 적용
- Northland Power는 양사 협력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
- 하반기 중 해저 송전선 및 터빈 간 케이블 설치 완료 예정이며, 2026년 말 상업운전 개시 목표
- 발전단지 위치는 Łeba와 Choczewo 인근 해역(연안 약 23km), 총 면적 약 130km² 규모
- 완공 시 설비용량 약 1.2GW, 연간 최대 4TWh 생산으로 폴란드 전체 전력수요의 약 3% 공급 가능 전망
- 본 사업은 폴란드 내 가장 진척된 해상풍력 프로젝트이자 유일한 해상 시공 진행 사업으로,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

- 중장기적으로 전력 탈탄소화, 에너지 안보 강화,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

○ Torpol - Mirbud, Rail Baltica 구간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 제기(2.18)

- Torpol - Mirbud 컨소시엄은 Rail Baltica Białystok - Elk 구간 철도 개량사업 입찰과 관련해, Warsaw 지방법원에 계약 체결 중단을 위한 채권 보전 가처분 신청 제출
- 해당 사업은 2025년 1월 공고된 대형 철도 인프라 투자로, 입찰 금액은 총 45억~66억 즈워티 범위
- 2024년 11월, 발주처 PKP PLK는 약 45억 PLN 규모의 Torpol - Mirbud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- 이후 경쟁사들이 폴란드 국가항소위원회(KIO)에 이의 제기, 2025년 1월 KIO가 일부 인용하며 기존 선정 무효화 결정
- KIO는 Mirbud에 대한 환경법 위반 과징금 이력(2022년, 1.5만 즈워티 미기재)을 문제 삼아 입찰 자격 배제 판단
- 이에 따라 PKP PLK는 Torpol - Mirbud 입찰을 제외하고 재심사 진행
- 2025년 1월 말, 약 50억 즈워티 규모의 Budimex SA - Budimex Kolejnictwo - Porr SA 컨소시엄을 재선정
- Torpol - Mirbud 컨소시엄은 “계약 체결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”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
- Mirbud 측은 “40년 역사상 최초로 1.5만 즈워티 과징금 누락을 이유로, 약 4억 즈워티 입찰이 배제된 것은 과도한 조치”라고 주장
- 컨소시엄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, KIO 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
- 본 사안은 대형 철도 프로젝트 입찰 절차의 공정성, 제재 기준의 비례성, 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 측면에서 업계의 주요 이슈로 평가됨

○ Toyota, 폴란드 Wałbrzych에 ‘순환경제 공장’ 설립 발표(2.19)

- Toyota Motor Europe는 폴란드 Toyota Motor Manufacturing Poland(TMMP) 산하 Wałbrzych 공장 부지 내 ‘Sustainable Circulation Factory(지속가능 순환 공장)’ 구축 계획 발표

- 해당 시설은 약 25,000m² 규모로, 연간 약 2만 대의 폐차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·재사용 전문 설비로 조성 예정
- 본 투자는 감축(Reduce)·재사용(Reuse)·재활용(Recycle)을 핵심으로 하는 Toyota의 순환경제 전략 이행의 일환
- 신규 공장은 기존 Wałbrzych 공장에서 생산 중인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생산과 연계되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
- Jarosław Fidler TMMP 순환공장 책임자는 “본 시설은 폴란드 자동차 산업 내 최대 규모의 순환경제 프로젝트로, 운영 다각화 및 자원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”이라고 언급
- 본 시설은 유럽 내 두 번째 순환경제 전용 공장으로서, 첫 번째 공장은 2025년 영국 Burnaston에서 가동 개시
- Toyota Motor Europe 순환경제 부문 관계자는 “폴란드는 재활용 산업 기반, 차량 해체 시장 잠재력, 기존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략적 거점”이라고 설명
- 향후 Toyota는 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유럽 내 타 국가로 순환경제 공장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
- 본 프로젝트를 통해 Toyota는 폐차 부품·소재 회수율 제고, 원자재 재사용 확대, 탄소배출 감축 및 ESG 경영 강화 효과를 기대
- Wałbrzych 순환공장은 향후 전기차·하이브리드 확대에 따른 배터리·부품 재활용 거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, 중장기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됨

○ Valmet - Veolia, 폴란드 Łódź 바이오매스 열회수 설비 공동 구축(2.19)

- Valmet과 Veolia는 폴란드 Łódź 소재 EC4 열병합 발전소에 바이오매스 기반 열회수 설비를 구축하는 ‘HeatUp!’ 프로젝트 협력 체결
- 본 프로젝트는 순환유동층 바이오매스 보일러와 연계된 고효율 열회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함
- 바이오매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잔열을 회수해 지역난방망에

재공급함으로써, 에너지 손실 최소화 및 연료 사용량 절감 효과 기대

- 설비 도입을 통해 연간 50MW 이상 에너지 회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기존 폐열 활용 대비 대폭 개선된 수준
-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82,000톤 이상 감축 효과가 예상되어, 도시 난방 부문의 탈탄소화에 기여
-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, 에너지 자립도 제고, 환경 성과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형 친환경 인프라 모델로 평가
- Veolia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 지역난방 시스템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, 저탄소 열공급 체계 구축을 강화할 방침
- Valmet은 고효율 열회수·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유럽 내 바이오매스 및 친환경 발전 시장 입지 확대를 추진 중

○ Tauron Ciepło, Bielsko-Biała CHP 부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착수(2.19)

- Tauron Ciepło, Bielsko-Biała 열병합 발전소 부지 내 3.58M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착공 발표
- 본 사업은 총 투자비 800만 즈워티 이상 규모로, 2026년 말 준공 및 상업 운전 개시 예정
- 연간 이산화탄소(CO₂) 배출량 약 2,200톤 이상 감축 효과 기대
- 태양광 설비는 기존 CHP 시설 철거 부지에 설치되며, 인허가 및 환경 영향평가 절차 완료
- 생산된 전력은 우선 발전소 자체 운영에 활용되며, 잉여 전력은 전력망에 송전, 향후 에너지저장장치(ESS) 연계 및 지역난방수 가열에도 활용 계획
- Marcin Staniszewski CEO는 “재생에너지와 기존 열병합 발전을 결합한 대표적 친환경 전환 사례”라고 강조하며, 본 사업은 ‘난방 부문 탈탄소화 및 친환경화 전략’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언급
- 투자 재원은 Voivodeship Fu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ter Management in Katowice의 저리 융자를 통해 조달, 관련 금융계약은 2025년 12월 체결
- Tauron Ciepło는 실레지아-동브롱바 대도시권 최대 지역난방 공급사로,

현재 약 1,100km 난방망을 운영하며, 약 28만 가구의 열공급 담당

- 이번 투자는 폴란드 난방·에너지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전략을 가속화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됨

○ PPL, CPK·신공항 건설 위한 33억 즈워티 금융조달 확보(2.20)

- 폴란드 국영 공항 운영사 Polskie Porty Lotnicze(PPL), 폴란드 3대 은행 컨소시엄과 총 33억 즈워티 규모 대출 계약 체결
- 참여 금융기관은 Bank Pekao SA(주관·담보관리기관), PKO Bank Polski Bank Gospodarstwa Krajowego
- 조달 자금은 Warsaw Chopin Airport 현대화 및 신공항 'Port Polska' 투자 참여에 활용 예정
- 대출 상환 기한은 2032년까지로, 신공항 개항 이전 상환 완료 계획
- 쇼팽 공항 현대화 사업비는 약 940백만 즈워티 규모로, 터미널 및 계류장 확장, 연간 처리능력 30백만 명 수준 확대, 2029년 여름 완공 목표
- Port Polska 총 사업비는 약 420억 즈워티로 추산되며, 2032년 말 운영 개시 목표임
- PPL은 신공항 특수목적법인(SPC)에 49% 지분 투자 예정이며, 2032년까지 약 46억 즈워티 투입 계획, 대부분 이번 금융조달을 통한 차입금으로 조달될 예정
- 향후 CPK 프로젝트는 총 투자비의 60~70%를 부채로 조달할 계획이며, 2026~2028년 약 100건 이상의 대형 입찰 추진 예정
- 이번 금융조달은 폴란드 항공 인프라 역사상 최대 규모 민간·공공 금융 협력 사례로, 국가 항공 허브 구축 및 중장기 물류·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됨

○ 폴란드, 독일과 포즈난 - 베를린 고속철도 공동 건설 추진 합의(2.19)

- 폴란드 인프라부는 독일과 공동으로 포즈난 - 베를린 구간 고속철도(HSR) 건설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
- 본 사업은 기존 바르샤바 - 포즈난 - 베를린 노선의 극심한 혼잡 해소 및 이동시간 단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

- 양국은 본 노선 건설을 위해 EU 재정기금 확보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, 차기 EU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(MFF) 협상에서 철도 인프라 투자 우선 순위 확보 목적
- Klimczak 장관은 독일 교통부 장관 Schnieder 및 프랑스 교통부 장관 Tabarot와 회담을 갖고 철도 협력 강화 합의서 체결
- 포즈난 - 베를린 고속철도 노선의 구체적 경로는 현재 기술·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정 절차 진행 중
- 바르샤바 - 포즈난 - 베를린 축은 폴란드 - 독일 간 핵심 교통 회랑으로, 물류·통근·관광 수요가 집중된 구간
- Klimczak 장관은 “폴란드 내 바르샤바 - 포즈난·브로츠와프 고속철도 건설비만 약 770억 즈워티에 달한다”고 언급하며, 독일의 공동 참여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
- 동시에 폴란드 PKP Group, 독일 Deutsche Bahn AG, 프랑스 SNCF Group 간 철도 안전·품질 협력 선언 체결
- 이번 합의는 폴란드 - 독일 - 프랑스 간 고속철 연계 강화와 범유럽 철도망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평가되며, 중장기적으로 중부유럽 교통·물류 허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
○ Grupa Azoty Polyolefins SA 구조조정 계획·채무조정안 제출(2.22)

- GA Polyolefins는 회생 일정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과 채무조정안을 제출, 채무 안정화 및 투자 거래 준비 단계 진입
- 본 절차는 회사의 채무 구조 개선과 Orlen과의 인수 거래 성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평가됨
- 마우고자타 크롤락 CEO는 “부채 구조조정 없이는 투자자와의 거래 완료가 불가능하다”고 강조
- 부분적 채무조정 방식을 적용, 법적 분쟁 여지가 없는 확정 채권 약 61억 PLN을 대상으로 하며, 채권 규모가 5백만 PLN을 초과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조정 협상 진행
- 조정안 승인 시 일반 채권 회수율 약 17% 수준, Orlen의 프로판 대출

채권은 주식 전환으로 제외

- 채권 유형·담보 여부에 따라 8개 이해관계 그룹으로 구분하여 상환 구조가 설계되었으며, 채무조정 재원은 Orlen의 인수 연계 금융지원 1,022백만 PLN이 핵심 기반
- Orlen의 프로판 구매대출 채권은 신주 전환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본금 101.6백만 PLN 증자, 다른 주주는 우선청약권 배제
- Grupa Azoty 그룹 내 계열사 채무 총 1,976백만 PLN도 구조조정 대상 포함, 이 중 모회사 Grupa Azoty 채권 규모는 789.5백만 PLN
- 계열사 채권 회수율 약 4.0%, 모회사 직접 채권은 0.06%로 매우 낮은 수준
- 이번 구조조정은 재무 정상화 및 Orlen의 100% 지분 인수 완료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, 향후 회사 존속과 사업 정상화에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됨

○ GA Polyolefins, “채무조정은 파산 아닌 구조조정” 공식 입장 표명(2.25)

- GA Polyolefins는 총 60억 PLN 이상의 부채를 대상으로 채권자 협약안을 제출하고, 이는 파산이 아닌 정상적 구조조정 절차를 공식 해명
- 구조조정 절차는 폴란드 구조조정법에 근거한 제도로, 채무 재편과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업 활동 지속을 목표로 함
- 본 조치는 Orlen에 대한 지분 매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평가됨
- Orlen 인수 제안은 2026년 3월 말까지 유효, 채권자 협약 승인 여부가 거래 성사의 전제 조건
- CEO 마우고자타 크롤락은 “채권자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인수 구조를 구축 중”이라고 강조하며, 현 단계는 청산·폐업이 아닌 기업가치 보존과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한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함
- 대규모 부채의 근본 원인은 ‘Police Polymers’ 프로젝트에서 발생, 2015년 착수, 2024년까지 누적 투자비 72억 PLN
- 공사 지연 및 계약 분쟁으로 2025년 Hyundai Engineering과 계약 해지 및 벌금 부과

- 2025년 6월, 폴리프로필렌 공장 기술 문제·자금난으로 생산 중단되었으며, 2026년 1월 이후, Pekao Bank 채무만 39억 PLN 이상 상환 부담 발생
 - 이번 구조조정은 재무 부담 완화, 인수 거래 성사, 장기적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
- 폴 전력망법(Grid Act) 개정안, 소급 적용 문제로 산업계 반발 확대(2.23)
- 폴 재생에너지 업체는 전력망법 개정안의 핵심 문제로 '소급 적용'을 지적하며, 기존 투자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
 - 前 PSE 사장 Majchrzak은 “법안이 기존 접속 계약에도 추가 부담을 부과해 게임의 규칙을 중간에 바꾸고 있다”고 비판
 - 개정안은 이미 접속조건 또는 접속계약을 확보한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선납금·보증금 부담을 적용해, 기득권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구조
 - Majchrzak는 새로운 금융·보증 체계는 신규 프로젝트에만 적용돼야 하며, 기존 사업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
 - 접속권은 확보했지만,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'좀비 프로젝트'와 관련해, 접속조건은 2년간 유효하며 이행 일정이 계약에 명시돼 있어, 운영사가 기존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
 - 대부분의 접속조건이 최근 3년 내 발급된 만큼, 현재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'좀비 프로젝트'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
 - 정부 및 운영사가 좀비 프로젝트의 규모·선별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, 규제 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영향 평가가 부재한 상태
 - 유럽 내 통계에 따르면 육상풍력 프로젝트 중 실제 건설 단계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약 20~40% 수준으로, 상당수 미완성 프로젝트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
 - 개정안은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시행 후 36개월 내 건축허가 획득을 요구하나, 실제 개발 기간(7~8년)에 비춰볼 때 비현실적 조건으로 평가
 - 추가 24개월 연장 제도도 고액 보증금 제출을 전제로 해, 중소 개발사에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구조
 - Majchrzak는 해당 법안이 법적 안정성·정당한 기대 보호·비소급 원칙 등 EU법 원칙 및 폴란드 헌법 정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

- 향후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국가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
- 풍력 프로젝트의 환경허가 단계까지 소요 비용은 MW당 약 2만~3만 유로로, 100MW 기준 약 12백만 유로에 달하는 상황
- 여기에 신규 보증금·선납금까지 더해질 경우, 초기 개발 비용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며 중소·독립 투자자는 건설 전 단계까지 대부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 때문에, 제도 변경에 특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
- Majchrzak는 해결 방안으로 ▲기존·신규 프로젝트 분리 적용 ▲접속조건 유효기간 단축(2년→1년) ▲단계별 이행 마일스톤 제도 도입 ▲전압 등급별 차등 보증금 적용 등을 제시
- 환경 허가, 건축허가, 계통 연계 준비 완료 등을 주요 달성 목표로 설정해,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평가
- 이번 논쟁은 폴란드 전력망 접근 규제의 구조적 개편 과정에서 투자 안정성과 계통 효율성 간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
-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존 프로젝트 보호와 실현 가능성 중심의 제도 보완 여부가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됨

○ Orlen Synthos Green Energy, 폴란드 제2원전 사업 참여 신청(2.24)

- OSGE는 폴란드 정부의 제2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, BWRX-300 원자로 기술의 입찰 참여를 공식 신청
- 신청 대상 기술은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의 BWRX-300 소형모듈원자로(SMR) 모델
- OSGE는 BWRX-300 도입 시 ▲300MW급 4기(총 1.2GW) ▲300MW급 8기(총 2.4GW) 등 두 가지 발전소 구성안을 제시
- 회사 측은 경쟁 입찰 대상 기술 확대를 통해 정부가 최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며, 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
- 현재 제2원전 경쟁입찰에는 EDF, 한국수력원자력(KHNP), AtkinsRéalis,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가 참여 중
- 정부는 2027년까지 경쟁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
- OSGE는 최근 개정 예정인 국가 원전 프로그램에서 '1GW 이상 가압경수로

(PWR)' 제한이 삭제되고, 3세대 플러스(Gen III+) 기준만 유지된 점을 근거로 자사 기술의 적합성을 주장

- 또한 700MW 미만 CANDU 모델을 보유한 캐나다 업체가 초청된 점을 들어, 정부가 중·소형 원자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평가
- OSGE는 BWRX-300 관련 최신 투자비·운영비·발전단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, 종합 사업제안서 제출 의사를 표명
- Orlen 전략에 따르면, 2035년까지 BWRX-300 2기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, 주요 예정 부지는 Włocławek, Oświęcim 인근 Stawy Monowskie, Stalowa Wola 등
- BWRX-300은 출력 300MWe급 비등수형원자로(BWR) 기반 SMR로, 모듈화·표준화를 통한 건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특징
- 현재 캐나다 Darlington Nuclear Generating Station에서 첫 실증 호기가 건설 중이며, 2029년 가동 예정
- 이번 신청은 폴란드 제2원전 사업에 SMR 기반 분산형·단계적 구축 사례를 도입하려는 시도로, 대형 원전 중심 전략에서 다변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됨
- 향후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폴란드 원전 정책이 대형 원전과 SMR이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됨

○ OSGE - GE Vernova Hitachi Nuclear Energy, 폴 SMR 공동 개발 협약 체결(2.25)

- Orlen Synthos Green Energy(OSGE)와 GE Vernova Hitachi가 미국 워싱턴 에너지부에서 소형모듈원자로(SMR) 개발 협약 체결
- 이번 협약은 폴란드형 BWRX-300 원자로 설계 및 현지화 개발을 포함하며, SMR 본격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 개시 의미
- 협약식에는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 Motyka와 미국 에너지장관 Wright가 참석
- 본 계약을 통해 사업 준비 기간 단축, 건설·운영 비용 절감, 폴란드 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기대
- 폴란드 정부는 SMR과 대형 원전을 병행 추진해 안정적·무탄소 전력 시스템 구축 전략을 지속 추진 중

- Motyka 장관은 “중·동부유럽 내 SMR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”이라고 평가
- 이번 합의는 폴란드-미국 간 에너지·첨단기술 협력 강화의 대표 사례로서 향후 SMR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분산형 전원 확대, 산업용 전력 안정 공급,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됨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우크라이나, 러시아 공습 대응 위해 변전소 지하화 추진(2.10)

-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망 운영사 Ukrenergo는 핵심 변전소를 지하 벙커로 이전하는 장기 보호 전략 추진
- 현재 1개 변전소 지하화 완료, 2번째 시설 건설 중이나 전국 약 100개 핵심 변전소 확대에는 재정 부담 큼
- 변전소 지하화 비용은 개소당 수천만 달러 수준으로, 단기간 내 전면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
-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에너지 안보·회복탄력성 강화에 필수적이나 수년과 막대한 투자 필요하다고 평가
- 러시아는 변전소·발전설비 공격을 통해 전력 송전 차단 및 대규모 정전 유발 전략 지속
- 중부·남부·동부 지역 발전시설 파괴로 서부 지역 전력 의존도 심화, 변전소 손실 시 전력 수송 불능 문제 확대
- Ukrenergo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대규모 부채 구조조정 선행이 필요하며, 수개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
- 부채 정리 후 유럽투자은행(EIB) 등 국제금융기관 자금 지원 유치 계획
- EIB는 지하 변전소 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,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표명
- 전쟁으로 인해 Ukrenergo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으며, 2025년 4월 825백만 달러 규모 채권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황
- 2023년 이후 변압기 콘크리트 방호시설 구축에 약 3억 달러 투입, 현재

절반 이상 완료, 잔여 방호 공사는 2026년 여름까지 마무리할 예정

- 이번 조치는 전력망 생존성 강화 및 장기적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으로 평가됨

○ 우,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·난방 안정성 강화 추진(2.9)

-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파손된 기존 화력·원자력 발전소와 송배전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, 분산형 재생에너지 및 소규모 열병합 발전 설비 확대를 적극 추진
- 특히 마을·도시 단위의 태양광, 풍력,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 병원, 학교, 사회복지 시설 등 필수 서비스의 전력과 난방을 유지
- 2025년 한 해 동안 1.5GW 이상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약 110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하며, 현재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3GW 이상 확대
- 향후 4년 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
- 분산형 구조 설계는 폭격에 취약한 중앙 집중식 발전소 대비 안정성을 높이며, 태양광·풍력 설비는 일부가 가동 중단돼도 전체 시스템 기능 유지 가능
- 65마일 전선 인근에 설치되는 500MW Tyligulska 풍력발전소는 전쟁 중 건설되는 최초의 풍력단지, 남부 90만 가구에 전력 공급 예정
- 지방 단위 소규모 전력망 운영도 확대되고 있으며, 태양광, 가스, 수력, 디젤 발전기와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
- 배터리 프로젝트는 유럽 대비 1/4 수준의 기간인 6개월 만에 설치 완료
- EU 및 국제 기금 지원으로 재정적 제약을 보완하며,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, 지역 기반 회복력 제고, 탈중양화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

○ 우, 전면전 이후 1.4GW 가스발전 구축·3GW 추가 개발 중(2.11)

-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지난 4년간 1.4GW 규모의 가스 기반 분산형 전력 설비가 구축 및 가동, 이 중 1.1GW는 전력망 연결, 0.3GW는 자가 사용용으로 운영되었으며, 2026년 1월 한 달에만 192MW가 신규 가동

- 설치된 설비의 약 60%는 민간 투자자 주도로, 나머지 비율은 국가 및 지방정부와 국제지원기관들과 협력해 개발, 특히 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196MW가 구축됨
 - 현재 3GW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가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으며, 정부는 올해 안에 중요 기반시설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분산형 발전으로 완전히 공급할 계획
 - 에너지부가 제안한 2035년까지의 분산형 발전 전략 개정안에 따르면, 지역별로 2.2~2.7GW 추가 보장 용량이 필요하며, 국가 전력 안정성과 자금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함
- 미국 DFC, 우크라이나 전쟁 위험 보험 확대에 지원 참여(2.11)
- 우크라이나 보험사 Knyazha VIG, 전쟁 위험 보험 상품 출시 및 미국국제금융공사(DFC)의 재보험 한도 2,500만 달러 확보
 - Knyazha VIG는 Vienna Insurance Group 계열사로, 전선 인접 지역 제외 우크라이나 전역의 자산을 보호하는 목적의 보험을 제공
 - 본 사업은 글로벌 보험중개사 Aon과 협력해 DFC 파트너 프로그램 하에 추진되며, 재보험 구조를 통해 총 최대 1억 달러 규모 전쟁위험 보험 포트폴리오 보장 가능
 - 중소기업 및 개인 대상 종합 전쟁위험 보험 상품 확대 기반 마련
 - Knyazha VIG는 DFC 전쟁위험 보험 프로그램 하 재보험 한도 계약을 체결한 초기 참여 보험사 중 하나
 - 본 제도의 목적은 군사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 리스크 완화 및 민간 투자 유인이며, 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우크라이나 내 기업 활동 안정성 및 금융 신뢰도 제고 기대
- 우 경제부, 트란스카르파티아 156MW 풍력발전단지 건설 승인(2.16)
-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 대형 풍력단지 건설을 최종 승인
 - 본 사업은 Polonyna Runa 지역에 5.5MW급 터빈 30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로, 총 설비용량은 156MW 규모

-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480GWh로, 약 23만5천 가구의 전력 수요 충당 가능
-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5년 10월 이후 러시아의 공격으로 약 8.5GW의 발전설비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
-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, 에너지 자립도 제고·공급 안정성 확보·EU 기준 부합형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
- 전면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풍력 260MW, 태양광 850MW 설비를 신규 구축하며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확충
- 국가 에너지·기후계획(2030)에 따르면,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27%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
- 현재 우크라이나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1% 수준으로, 중장기 확대 여력이 큰 상황
- 본 사업은 전력 인프라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복원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, EU 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구조 개편을 가속화하는 상징적 사례로 분석됨
- **우 정부, 열병합 발전소 및 지역 난방 설비 재건 위한 구형 설비 확보(216)**
 - 우 정부는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 난방 시설의 복구를 위해 동유럽 내 구형 소련식 발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설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
 - Shmyhal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신규 장비 생산에는 4~6개월이 소요되므로, 기존 설비 이전이 단기 복구의 핵심이라고 설명
 -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동유럽 구형 설비를 식별·평가하고, 필요한 장비를 기존 설비에서 분리·이전하는 절차 진행 중
 - 현재 여러 유럽 시설에서 장비 이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, 우크라이나 내 난방 시즌 대비 공격으로 파손될 수 있는 장비를 비축하는 계획도 병행
 - 장비 확보 및 구매에는 설립 이래 18억 유로를 모금한 Energy Support Fund of Ukraine가 지원
 - 최근 러시아 공격으로 키이우, 헤르손,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 난방 설비가 피해를 입었으며, 특히 2월 12일 밤 키이우에서는 미사일·드론 공격으로 약 2,600여 동 고층건물 난방이 중단

- 본 조치는 러시아 군사 공격으로 인한 난방 공백 최소화, 연속적 에너지 공급 확보 및 전력·난방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
- 독일 방산업체 Stark,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인 전투체계 R&D센터 설립(217)
 - 독일 방산기업 Stark는 우크라이나 내에 무인 전투체계 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하고 현지 연구 역량 강화에 착수
 - 신규 센터는 약 2,000m² 규모로, 2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근무 가능하며 무인기 개발·통합·운용자 교육·기술지원 기능 수행
 - 전장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일일 단위 기술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해, 설계부터 양산까지의 개발 주기 단축을 목표로 설정
 - Stark는 우크라이나 내 연구개발 기능을 향후 무인항공기(UAV) 본격 생산 단계까지 확대할 계획
 - 주력 제품인 Stark Virtus 드론은 AI 기반 자율 표적 탐색·공격 기능을 탑재, GPS 차단 및 전자전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
 - 최대 5kg급 모듈형 탄두 장착 가능, 최대 비행거리 약 100km로 중·장거리 타격 임무 수행 가능
 - Virtus 드론은 2025년 8월 자포리자 지역에서 최초 실전 운용 사례가 확인
 - 이번 R&D 센터 설립을 통해 Stark는 우크라이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무기 기술을 신속히 개발·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 확보
 - 본 투자는 유럽 방산기업의 우크라이나 현지화 전략 강화 사례로, 전시 기술 혁신 가속 및 방산 협력 확대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를 가짐
- Power One,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족 대응 위해 가스발전소 가동 확대(218)
 - Power One은 지속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다수의 분산형 가스발전소의 조기 가동을 개시
 -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발전소를 오전·저녁 피크 시간대 중심으로 제한 운영할 계획이며, 7월까지 전체 발전 용량 완전 가동 목표
 - 본 사업의 공동 추진자인 Kudrytskyi(前 Ukrenergo 대표)는 초기 단계 이후 단계적 투자 확대 방침을 공식화

- 현재까지 총 투자 규모는 약 20백만 유로이며, 향후 1년 내 추가 자본 투입을 통해 에너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확장 예정
 - 초기 투자자는 Dragon Capital이며, 향후 국제금융기구가 관리하는 특수 목적법인(SPV)을 통해 소유구조 전환 계획
 - Power One은 Dragon Capital CEO Tomasz Fiala와 Kudrytskyi가 공동 설립한 발전 플랫폼으로, 2025년 말까지 60MW 분산형 발전 구축 목표 수립
 - MW당 건설비는 약 60만~70만 유로 수준으로, 1단계 사업에 Dragon Capital이 약 30백만 달러 투자 예정, 차입 비중은 60~70%임
 - EBRD는 신규 발전 설비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(BESS) 구축을 위해 2,230만 유로 규모 금융 지원 제공
 - 본 사업은 전력 인프라 분산화, 비상 대응력 강화, 전력 피크 대응 능력 제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 및 복원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 - 중장기적으로 민간·국제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발전·저장 복합 에너지 모델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, 전시·비상 상황 대응형 전력망 구축에 핵심 역할 기대
- 우크라이나 트레일러 기업 TAD, 직원용 주택 재건 사업 착수(2.18)
- TAD는 우크라이나 Volochysk 소재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직원용 관사(사택)로 전환하는 공사 착수
 - 본 사업은 미완공 상태로 방치된 구(舊) 건물을 매입·재건하는 프로젝트로, 총 36가구 규모 아파트 조성 목표
 -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전문 인력 가족을 대상으로, 입사 초기 6~12개월간 무상 거주 지원하는 '사내 주택 모델' 적용
 - 총 투자 규모는 약 130만 유로이며, 준공 목표는 2027년
 - Melnyk CEO는 “전시 상황으로 양질의 주택 부족이 인력 확보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, 주거 인프라 투자를 결정했다”라고 설명
 - 기존에는 단신 직원 숙소만 제공해왔으나, 가족 동반 인력 유치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판단
 - 향후 장기 근속 직원 대상 분양형 주택 건설도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
 - TAD는 2025년 5월 8백만 달러를 투자한 대형 특수트레일러 생산단지의

준공을 완료, 전쟁 기간 누적 투자액 20백만 유로 이상

- 현재 용접공·CNC 조작용·전기기사 등 전문 인력 채용 확대 중이며, 지역 직업학교와 연계 인력 양성도 병행
- 본 주택 프로젝트는 전시 환경 속에서도 인력 확보·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 인프라 투자로 평가됨

○ 프랑스, 우크라이나 투자펀드 성과 기반 추가 출연 결정(2.20)

- 프랑스 정부, 우크라 내 프랑스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'우크라이나 투자펀드' 2차 운영에 71백만 유로 추가 배정 발표
- Vessier 주우 프랑스 대사와 Sobolev 우 경제부 장관은 2026년 2월 20일 키이우에서 펀드 연장 협약 체결
- 본 펀드는 전력·수자원 등 공공 인프라, 보건의료, 디지털화 등 핵심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
- 해당 펀드는 2024년 최초 출범 이후, 총 2억 유로 규모로 19개 프로젝트에 투자, 이 중 18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, 1개 프로젝트만 일정 지연 발생
- Sobolev 장관은 "펀드가 우수한 성과 기록을 확보했다"라며 제도적 신뢰성 강조, 프랑스 우크라이나 특사 Lacoue-Labarthe는 프랑스·우크라 기업 모두 사업 성과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
- 프랑스 측은 본 펀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타국 정부로부터 정책 자문 요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
- 향후 약 1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30~40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며, 현재 프랑스 기업 대상으로 4월 9일까지 2차 투자 신청 접수 진행 중
- 이번 추가 출연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및 민간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프랑스의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

○ Chortkiv 산업단지, 해외 투자 유치로 기반시설 확충 추진(2.19)

- Chortkiv 시의회, 'Chortkiv West Industrial Park' 개발을 위해 약 62만 달러 규모 해외 투자 유치 성공

- 본 사업은 UCORD WAS Grant Programme 지원을 통해 추진되며, 우크라이나 지역균형발전 및 결속 강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행
- 재원은 Swiss Development Agency 및 NIRAS Sweden AB의 지원을 통해 조성
- 투자금은 산업단지 내 상·하수도 내부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예정이며, 전체 프로젝트 예산은 약 53만 스위스프랑(CHF) 규모로,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최소 20% 공동 부담 구조
- 본 사업은 지역 수요 분석, 투자 준비도, 경제 파급효과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, 해당 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 및 Chortkiv 지역사회 사회·경제적 우선과제와 연계 추진
- 지방정부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 투자 유입과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기대
- 본 투자는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 산업 인프라 강화와 전후 경제 회복 기반 구축을 위한 대표적 국제 협력 사례로 평가됨

○ 우크라이나, 2025년 태양광 설비 건설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(2.19)

- 우크라이나 태양광 에너지협회는 2025년 간 우크라이나 내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1.5GW가 구축 완료되었다고 발표
- 이는 2024년(약 800MW) 대비 약 100% 증가한 수준으로, 태양광 설비 건설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확대
- 신규 설치 용량은 여름철 피크 시간대(7~10시간 기준) 기준, 대형 지역 도시 1곳 또는 중소도시 여러 곳의 일일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
- 이번 집계에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뿐 아니라 가정용 태양광 설비도 포함
- 태양광 설비 확대는 전력 인프라 공격 및 불안정한 전력 공급 상황에 대응한 자가발전 수요 증가에 기인
- Sokolovsky 회장은 “에너지 시설 피격 등 최근 상황으로 기업과 가계가 에너지 자립과 보안을 우선시하고 있으며, 태양광이 가장

현실적인 해결책"이라고 강조

- 2026년에도 최소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의 태양광 신규 설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
- 태양광 중심 분산형 발전 확대는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비상 상황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
- 본 추세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구조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됨

○ Ukspecsystems, 영국 내 첫 우크라이나 드론 공장 가동 개시(2.25)

- 우 방산기업 Ukspecsystems는 영국 내 첫 생산시설을 공식 가동 하며 해외 방산 생산 거점 구축 본격화
- 해당 공장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드론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분산 생산기지로 운영
- 주영 우크라 Zaluzhnyi 대사는 “핵심 기술과 엔지니어링 역량은 우크라이나에 유지하고, 생산은 영국 방산 생태계와 연계하는 이중 회복력 구조”라고 설명
- 본 사업은 생산시설 공격 위협에 대비한 ‘제2 안전망’ 구축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, 우-영 간 방산 협력이 단순 지원을 넘어 공동 산업기반 구축 단계로 진화했음을 의미
- 양국은 요격용 드론 양산을 위한 ‘OCTOPUS 프로젝트’를 공동 추진 중이며, 영국에서 월 수천 대 생산 목표
- 해당 요격 드론은 영국 과학자·기술진과 협력해 개발됐으며, Shahed 계열 드론 요격에 높은 성능 입증
- 요격 드론은 기존 방공 미사일 대비 비용 효율성이 높아 대규모 드론 공격 대응에 핵심 전력으로 평가
- 이번 공장 가동은 우크라이나 방산산업의 글로벌 분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대표 사례이자, 서방국과의 방산 공동생산 체계를 강화해 장기전 대비 산업·군사 역량을 확충하는 계기로 평가됨

○ Pan Kurchak Group, 연 700만m³ 규모 바이오메탄 플랜트 건설 추진(2.25)

- 우크라 농축산 그룹 Pan Kurchak은 연간 700만m³ 이상의 바이오메탄을 생산하는 신규 플랜트 건설 계획 발표
- 이사회 의장 Horlach는 자사 축산·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 연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설명
- 본 투자는 원료 자체 조달 기반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
- 회사 측은 바이오메탄 사업을 통해 생산 안정성 확보와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
- 바이오메탄 외에도 ▲생산시설 현대화 ▲육계 사육 규모 확대 ▲고부가 가치 제품군 확대 ▲신규 수출시장 진출을 병행 추진
- 인력 투자, 디지털 전환,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
- Pan Kurchak은 2002년 설립된 농축산 기업으로, 사료·사육·가공·유통을 통합 운영
- 현재 볼린 및 리브네 지역에서 약 25,000헥타르 규모 곡물 재배 사업 운영
- 자체 사료 생산과 가금육 가공을 결합한 폐쇄형 생산 시스템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
- 이번 바이오메탄 투자는 우크라 농축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사례로서, 축산 폐기물 자원화, 온실가스 감축, 수익 구조 다각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투자로 분석됨

○ **우크라이나 의회, 폴란드 국책은행 BGK의 현지 활동 승인(2.26)**

- 우크라이나 의회는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Bank Gospodarstwa Krajowego(BGK) 활동 관련 협정 비준안 승인
-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 내 BGK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정부·공공·민간기관 대상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포함
- 비준 대상 법안은 “우크라이나 정부와 폴란드 정부 간 BGK 활동 관련 협정 비준법”으로, 의회 소재지인 키이우에서 통과
- BGK는 폴란드 국고가 100% 소유한 유일한 국책은행으로, 개발금융 및

공공투자 지원 역할 수행

- 협정에 따라 BGK는 대출 및 기타 금융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, 공공기관, 민간기업에 자금 지원 가능
- 우크라이나 의회는 본 협정이 전후 재건 가속, 양국 간 금융·투자 협력 확대, 개발 프로젝트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
- 2025년 7월, BGK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투자 지원을 위해 에너지·교통·제조 분야 중심의 협력 의향서 체결
- 해당 협력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유럽 대표 펀드(European Flagship Fund) 조성 계획도 포함
- BGK는 100년 이상 운영된 개발은행으로, 인프라·주택·중소기업·에너지 전환·안보 분야 투자 금융을 담당
- 공공·민간 부문과 협력해 국가 전략 과제 관련 자금 조달 및 투자 촉진 역할 수행
- 종합적으로, 이번 비준은 폴란드 국책 금융기관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,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기반으로 평가됨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 역 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 역 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6. 1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'26. 2월 태웅로직스 사업 철회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 개최 예정(1.20)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○ (주요동향) 현지 SPC(GAP S. A.), 구조조정*을 위해 중재취하를 위한 협의 진행 중(→현대엔지니어링)

* 구조조정 요건 중 분쟁채권 15% 미만인 경우 '합의조정' 가능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업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업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
○ (주요동향) '26년 1월 이사회 부의(투자) 후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
'26년 2월 이사회 부의(자회사설립) 후 SPA 체결
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1월 금융종결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

- (주요동향) '26년 2월 Phase 1&2 현지 거래 종결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 스템 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 스템 플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필 공 현 대 화 재 등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월), 최종보고('25.12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1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